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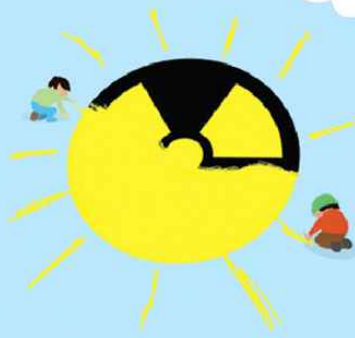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블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렁이 뽀!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현재, 조속히 탄핵해야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날, 이정현과 정진석을 불러다놓고 억울하다는 말을 20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에게 죄 있다고 말하는 쪽은 불과 두어달 전만해도 박근혜가 목줄을 쥐어뜯던 자들입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의원 60명 이상에 의해 탄핵당할 것을, 또 검찰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것을, 아울러 언론에 의

해 사생활이 털릴 것을 이때만 해도 어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기회주의에 찌든 이 권력집단이 갑자기 변심했다면 박근혜의 죄가 도저히 감싸고 덮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 작당을 해서 박근혜를 모함했다, 그건 박근혜 주장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자기 죄를 뇌물죄라고 못 박은 바 있는 현 민정수석에게 지도 편달을 받기 바랍니다.

박근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거나 반대로 죄를 알지만 거짓말을 하는 상태거나 아니면 허언증 상태,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건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현실을 헌법재판소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대로 속히 넘어 가야 할 대한민국호를 더 이상 정체시키지 않도록 현재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결판을 주문합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13일(화) 1부 | "현재 길게 안 끈다...만장일치 탄핵일 것"

[오프닝] 혼자만 억울하다니...'정신이상' 컨셉트 밀고 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최순실이 이 나라 대통령이였다...박근혜에 회의 주제 "지시"

-'문고리' 안봉근 "'김기춘'이도 나 안 통하면 안 돼' 거들먹

-전 현재 재판관 "권력 남용만으로도 이미 '파면' 대상"

-분당시 비박당 지지 14% 친박당 지지 5%...새누리 미래 암담

-김무성, 주말 쫄 탈당해 신당 창당작업 착수할 듯

[뉴스듣기능력평가] 노무현을 눈 뜨게 한 시국 사건 관련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호갱' 한국, 비싼 돈 들여 F-35 구매" 트럼프 공식 인정

-트럼프 '왜 하나의 중국에 얽매어야 하나' 발언에 중국 발끈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유임된 유일호, 사드 보복에 대한 비상대책 있다고 하셨죠?

-[화요경제학] 이케아 이펙트와 문재인-이재명 지지자

[공화국 논평] 최소 62명 탄핵 찬성 비박계에 대한 중대조치

이게 나라냐

한겨레 최순실이 이 나라 대통령이였다

한겨레가 정호성 파일을 줬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파일과 문자 등에서는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3년 최순실은 유럽 순방을 앞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 순방 전 기자회견을 열 것을 지시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전례가 없다며 준비하기 힘들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최순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쳤고 4주째 열리지 않던 수석비서관 회의가 만나질 만에 열렸다. 박근혜가 주재한 회의였다. 박근혜가 최순실 지시를 받은 셈이다. 또한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정호성과 다른 비서관들은 의전 준비를 했다.

한겨레 차, 안종범에 “쓰고 계세요?” 뒤달

한겨레 또 다른 보도. 왕수석으로 통하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역시 대통령 박근혜에게 대면보고 대신 전화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안종범은 청와대 근무 당시 박근혜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지시를 받아 적기 바빴다. 두서없는 지시를 정신없이 받아 적고 있으면 박근혜는 “깨알같이 쓰라, 쓰고 계세요?”라며 재차 채근했다고 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이런 ‘전화통화 받아쓰기’를 통해 510쪽 분량의 수첩 17권을 남겼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세계일보 안봉근 “김기춘이? 나한테는..”

세계일보 특별취재팀이 ‘정윤희 문건’의 초안 성격인 ‘시중여론’을 분석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봉근이 “나를 거치지 않으면 김기춘이도 ‘대장’에게 보고서를 낼 수가 없다”며 권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김기춘 실장님이 아니라 김기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아가 안봉근은 “정부 주요 인사는 내가 다 관여한다. 수석 한 둘쯤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정부 인사에 개입했음을 밝혔다. 지랄하고 자빠진 안봉근이다.

현재의 심판 포인트

한국일보 차 옷·가방? 뇌물·횡령죄 가능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는 대통령 박근혜가 사용할 옷과 가방을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옷과 가방은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대금으로 4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박근혜에게 뇌물죄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누가 이런 박근혜에 죄 없다고 두둔하겠나. 박근혜 말고.

경향신문 “박근혜, 권력 남용만으로 파면”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다. “박근혜는 이미 통치권력 남용에 따른 파면 대상이다. 형사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형사법원에서 다투면 된다.” 탄핵심판 결론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한겨레 현재, 탄핵심판 마냥 안 늦출 것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 사유들을 모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재판이 마냥 길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현재가 모두 심리한다고 했지, 모든 사유가 입증돼야 탄핵할 수 있다고 한 건 아니다. 현재가 국민적 여론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20여가지 탄핵 사유 하나라도 해당하면 탄핵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 그런데 사안이 복잡한 게 없다. 잡범수준의 범죄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부역자들

한국일보 “친박당보다 비박당 지지”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으로 새누리당이 분당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이 쪼개지면 친박당보다는 비박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박 지지 의견은 13.5%, 친박 신당은 약 5%로 나타난 것이다. 아이고, 두 배가 넘는 지지네. 하지만 그래봐야 15%가 안 된다.

이런 결과가 현실이 된다면 비박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2당, 친박당은 국민의당 다음의 제4당으로 추락하게 된다.

한국일보 74% “與 쇠신해도 지지 안 해”

계속해서 한국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 대통령 박근혜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당을 전면 쇠신을 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74%를 넘었다. 하지만 보수층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자들 다수는 쇠신한 여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새누리당이 지지를 회복을 위해선 보수층과 반기문 총장 지지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朝鮮日報의 반기문 띄우기가 시작 된다

탄핵 정국을 맞이하자 차기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로 점쳐지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킥메이커를 자처하고 있다. 반기문 띄우기 사실을 실은 것이다. 해당되는 부분 읽어보겠다. “반 총장은 지난 10년간 국제 평화, 개발 협력, 인권 개선 등 유엔의 3대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사무총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 분쟁 해결과 기후변화 문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동분서주는 인정받아왔다. 한반도가 강권 스타일의 '스트롱 맨(strongman)'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인 현실에서 외교·안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반 총장이 미·중·일·러 지도자와 즉각 전화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일 것이다. 수출로 먹고살아 온 나라에서 원만한 국제 관계를 유지할 책임자이기도 하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메시지를 갈망하는 조선일보의 심리가 읽힌다.

東亞日報 김무성, 곧 탈당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성 전 대표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전 대표 진영은 내년 1월 말까지 신당을 만든 뒤 경선을 치러 2월 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김무성 전 대표 측은 유승민 의원과 ‘탈당파’들에게 신당에 합류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해방이화

국민일보 후배 얼굴에 먹칠하는 이대 선배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병준 전 국무총리 내정자의 부인들이 모두 이화여대의 사교모임격인 ‘알프스’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알프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총동창회장을 지낸 곳이다. 김장자 회장이 최순실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화여대를 축으로 ‘최순실-김장자-우병우’ 라인이 조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화여대의 사교모임격인 ‘알프스’가 최순실의 인재 풀로 악용됐을 수 있다. 국민일보 보도, 이런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총장 쫓겨나고 정유라 두둔한 교수들도 줄줄이 철퇴를 맞게 됐다. 지금의 이화여대생들, 저런 못난 선배들, 본받지 않을 거라 믿는다.

한겨레 정신 나간 ‘4대강 교수’

위스콘신대 박재광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과거 “4대강을 하면 4년 안에 부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백재광 교수가 일일 특강을 했다. 그는 특강에서 최근 쫓겨나 시위 정국에 대해 “아시아들은 특하면 울고 시위한다”며 인종차별적 망언을 쏟아냈다. 또한 “지금은 풍요로운 세대다. 투정 부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한심한지 아느냐”며 젊은 세대를 비하했다. 어디서 특강을 했느냐. 이화여대에서. 그래서 개 털리고 있다.

오늘의 칼럼

東亞日報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동아일보에 실린 것이다. 동아일보 칼럼을 인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이다.

“현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모든 법 위반이 아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특히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파면이 정당화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는 뇌물 수수, 부정부패,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 등을 적시하고 있다.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의 탄핵 사유는 이와 같은 현재의 판례에 따라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그러면 대통령의 법 위반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하는가. 대통령에 대한 범죄 행위가 확정되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탄핵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런 해석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 위반은 검찰 등 형사사법 당국이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는 현재의 견해다.

화급한 국가 중대사를 헌재가 소송법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헌재 스스로 그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자의 헌법재판 실무 경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 헌재의 역량 등으로 보건대 이 사건 역시 2~3개월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3~4월 대선이 유력해진다는 말이다.

[성명서]

언론장악 부역자들을 청문회장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특위'가 제3, 4차 청문회 및 현장조사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15일 제4차 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언론 장악 및 통제'를 다룰 계획이다. 언론은 재벌, 검찰과 함께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핵심 공범 중 하나로, 국민들은 촉불을 높이 들며 '언론 장악 부역자 청산'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언론 장악 적폐' 청산 없이는 또 다른 박근혜, 최순실이 언제든 출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일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에 '언론장악 당사자'가 하나도 없다. '정윤희 문건'을 최초 보도한 후 온갖 언론 탄압에 시달려야 했던 세계일보 관계자들만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김영한비마략'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수석비서관들이 세계일보는 물론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언론 통제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장악 주범이자 가해자인 김기춘,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안광한 MBC 사장, '최순실 장학생'으로 지목받고 있는 EBS 우종범 사장, YTN 조준희 사장 등 핵심들이 모두 빠진 가운데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 출석 없이 형사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영언론은 '박근혜, 청와대, 비선실세' 등을 금기시하며 국정농단을 방조해왔다. 게이트가

터진 후에는 단독 '오보'까지 내보내며 사태를 축소, 은폐, 물타기하려 했다. 그런데 공영언론 책임자들을 빼놓고 어떻게 '언론 통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단 말인가? '정윤희 문건' 보도에 위법적인 보복까지 공모하고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를 좌지우지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을 부르지 않고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YTN 사장 문제에 대한 최순실씨 관련 제보가 당에 들어오고 있다"며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과 조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이다. 지금이 바로 '언론장악 적폐 청산'을 위한 적기다. 청와대와 재벌에 빌붙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언론부역자들을 축출하고, 법적 책임 또한 단호히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장악 당사자와 부역자들을 청문회장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은 국조특위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했다. 언론장악 부역자들을 모두 청문회장에 붙잡아 세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장악 주범과 부역자들을 청문회에 세우는 일을 누가 방해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2016년 12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